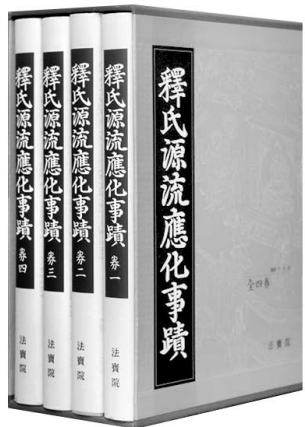


글·그림으로 부처님 행적 좇아



석씨원류응화사적
이광우 번역
법보원 | 20만원

'석씨원류응화사적' 한글번역본 발간

보물 제591호 석씨원류응화사적책판(釋氏源流應化事蹟冊板)이 한글번역본으로 발간됐다.

4권 1집로 발행된 <석씨원류응화사적>은 <불본행집경> <인과경> <열반경> 등 경전에서 인용한 부처님의 일대기가 1·2권에, <고승전> <불조통기> 등에서 뽑은 부처님의 말씀에 이어받은 전법 제자들의 행적이 3·4권에 실려있다.

책은 4·6배판으로 원문, 그림, 한글번역으로 출간하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은 앞부분에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 뒷부분에는 책판 원문과 그림이 실려있다.

1673년(현종 14) 양주 불암사에서 목판에 새긴 석씨원류응화사적책판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권은 100행목 212매로 구성되어 있다.

목판의 양면에 본문이 새겨진 체제이며, 각 면에 책의 중간이 접히는 판심(板心)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4자구로 된 제목을 달았다. 본문은 12행 24자씩 배열하였으며, 왼쪽에 책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원래 불암사에 소장되었으나 현재는 동국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책판은 새김도 비교적 정교하며 내용과 그림이 동시에 묘사되어 있다.

또한 내용에서도 신라시대 의상, 자장과 고려시대 의통 스님등의 사적도 실려 있다. 또 1486년(성종 17) 명나라 현종의 <어제석씨원류서>, 1672년에 쓴 이해의 <석씨원류서>, 당나라 왕발의 <석가여래성도응화사적기>, 최능의 <석씨원류후발>도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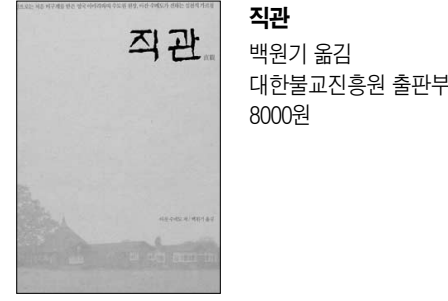
이 책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편집되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본문 끝에 실려 있는 발문에 의하면, 1631년(인조 9)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이 가지고 와서 금강산 백운암에 두었다고 한다. 그 뒤 유점사 지십(智什) 스님이 1673년(현종 14) 양주 불암사에서 처음 개간했다고 한다.

한편 책을 번역한 이광우씨는 동국대 국어국문과 강사를 거쳐 현재 중국 북경대학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책판에 나오는, 부처님 탄생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족계를 받은 영국 아마라와 띠 수도원 원장인 아잔 수메도의 실천적 가르침을 엮은 법문집.

<직관>은 아잔 수메도가 2001년 영국 햄스테드의 아마라와 띠 수도원에서 정기적으로 설한 법문의 내용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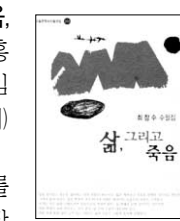
아잔 수메도는 40여년이 넘는 오랜 수행을 통해 그가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전달하고 있다.

그의 가르침은 '어떠해야 한다'는 이상으로의 추구가 아니라 다만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대상,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어떤 경험을 하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에 관한 것이고, 심지어 고통조차도 환영하고 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 '직관적 알아차림'을 가지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법의 하나로 모든 것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침묵의 관조자'가 될 것을 제안한다. 이 '침묵의 소리'는 스스로 집착과 관념에서 벗어난 내면의 울림이며 우주적 의식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

새로운 책

■ **삶, 그리고 죽음(최장수 지음, 교음사)**= 강원도교육청 장학사와 흥천 서석고와 흥천여중 교장을 역임한 수필가 최장수 씨의 회수(70세) 기념 수필집.
2004년 뇌경색으로 병입 신세를 진후 새로 느낀 삶에 대한 글이 많다. 이 책에는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죽음의 준비' '산사에서 만난 소녀' '보시 바라밀' '할머니 스님' '눈속에서 만난 마애불상' '아잔타 석굴' '초전법륜지' 등 31편의 수필이 실려있다. 저자는 "연구불법에는 존재는 없으며 생명있는 것은 죽는다"며 "삶은 무아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고귀하다. 무상한 삶을 뜻있고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 이 책을 엮었다"고 말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네가 마음챙기는 공부 초기불전연구원, 각목 스님, 1만원
 - 불교의 이해와 실행 조계종출판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9000원
 - 생활속의 금강경 효린, 우봉 스님, 7000원
 - 인도불교사, 2 시공사, 에미엔 라모트, 6만5000원
 - 달라이라마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 하안문, 맨진자초, 1만2800원
- 도서주문 (02)2004-8220

조사들의 숨결 생생한 禪의 고전

'선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한 존재의 중심에 깊이 가 닿을 수 있는 내적인 지각 능력을 강조하는 데 있다' (스즈키 다이세츠: 선불교를 서양에 전파한 세계적인 불교학자)



선의 황금시대
김연수 지음
한문화멀티미디어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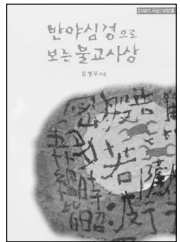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선의 황금시대는 선사들이 많이 배출했던 당나라 시대를 말한다. 이 책 <선의 황금시대>는 1967년 초판 발행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의 텍스트로 남아 있을 만큼 고전이 된 책이다.

중화민국 주재 바티칸 교황청의 공사를 지낸 존 C.H. 우오(경웅)가 선에 대해 20세기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스즈키 다이세츠 박사를 만나 역대조사들의 깊은 통찰에 깊이 빠져든 뒤 발간한 서

적. 이 책은 다양한 판본과 각국의 언어로 전 세계에서 발간돼 선의 정신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7년 서돈각 박사 번역으로 초판이 발행된데 이어 1986년 류시회씨 번역본도 출간됐다.

소설가인 김연수씨가 96년 발행된 델(DELL)출판사본을 번역한 이 책은 역대조사의 일화와 선사들을 동서양 철학과 종교를 넘나드는 저자의 풍부한 해설을 통해 만나면서 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반야심경으로 쓴 불교



반야심경으로 보는 불교사상
김명무 지음
현대미술사
1만2000원

공(空)사상의 광활한 넓이와 불교사상의 심오한 깊이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반야심경 해설서가 나왔다.

이 책 <반야심경으로 보는 불교사상>은 기존의 학자나 수행자가 발간한 책과 달리 극작가인 김명무씨가 스스로 갖고 있던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듯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교적 입장에 치우치지거나 학문적이지도 않다.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용어풀이와

해설, 보살의 세계, 공사상의 배경과 의미, 우주의 모습, 깨달음의 경지, 반야심경의 역사적 배경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김명무씨는 "21세기 문명의 큰 두가지 화두는 '동양으로의 귀환'과 '생태적 상상력의 복원'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답은 동양의 지혜와 사상을 담으면서 인간생활의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불교'에서 찾아야 하며 그 핵심인 반야심경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투병을 수행삼아 이웃과 함께



살아생전 단 한번 만이라도
도천당 건덕스님
날마다좋은날
8000원

20여년간 신부전증을 앓으면서도 투병을 수행삼아 소년소녀가장돕기, 신장병 어린이 후원 및 불우이웃돕기 실천 불교에 앞장서왔으나 지난해 12월 3일 입적한 도천당 건덕 스님의 유고집이 나왔다.

<살아생전 단 한번만이라도>에는 20년간 단 한방울의 오줌도 누워보지 못한 스님의 아픔과 물을 한번 실컷 마셔보고 싶은 소원이 들어있다.

이밖에도 자살, 출가, 복인줄 알고 감사의 눈물이, 슬픈계절에 만나요, 나의 가슴

에 묻어둔 신장병 어린이들 스님이 틈틈이 쓴 글과 미용사 주지 정각 스님을 비롯 고향친구와 도반, 신도들이 쓴 추모글들 41편이 실려있다.

스님은 평생 숙원이었던 신장병어린이 후원회 결성을 20여일 앞두고 자서전 출판과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던중 몸을 돌보지 않고 강행군을 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입적에 들었다.

스님의 법구는 생전 유언에 따라 동야대 병원에 기증됐다.

김원우 기자

깨달음에 이르는 길

초발심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수행법의 결정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완역출간이며 한국 불교에 기념비적인 경론!!

달라이 라마가 2005년 12월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서 추천했던 바로 그 책!!

승속을 불문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환희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저자는 이 책에서 법과 영적 스승에 귀의함으로써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죽음, 인과법칙과 수많은 고통을 뛰어 넘어 사랑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이타의 보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더 나아가 궁극적 진리인 자기도 없고 남도 없는 공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결국 모든 인간에게 소중하게 부여된 궁극적 깨달음을 향한 자유의 길을 제시해준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대중적인 수행의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며 좀 더 높은 차원의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수행단계도 소개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진리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수행은 인위적으로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이천 년 동안 붓다와 그 제자들이 스스로 실천해 온 방식이기도 하다.

수행자들은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 때 압도당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써 수백 번, 수천 번 언드러 절을 하며 자기들의 영혼을 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제 당신도 세계 불교를 이끌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총카파 지음 / 청전 율리
신국판 변형, 양장본 / 1008쪽 / 값 43,000원

산중일지

늦각이 수행자의 25년간의 진솔한 수행담!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극찬했던 바로 그 책!



저자는 우리 불교사의 중요한 시기에 수행했던 원로였다. 이 책은 수행자의 사표를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책이며 당대 선지식인들의 면모를 후대인들에 의해 윤색되지 않은 생생한 일화로 만날 수 있다. '환로'를 모색해가는 한 수행자의 평범한 일상과 철저하게 은둔속에 갇힌 수행자의 길과 그 길속에서 수없이 만나는 의문의 물음들에 대해 너무도 진솔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현직 지음 / 신국판 변형 / 값 10,000원

동국대 역경원장 월운 스님이 옮기고 해설한

부모는중경



부모는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자식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 있고서는 부모의 은혜가 왜 소중한지, 왜 다짐을 수 없는지 가슴 깊이 알게 해주는 책이다.
신국판 변형, 양장본 / 값 8,000원

지영사 Tel. (02) 747-6333